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

발자국을 남기기 (Leave Tracks)

월요일 아침 영상

2020 년 10 월 26 일

지난 크리스마스에 켄 [남편]과 저는 저의 어머니를 방문했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제가 자란 마을 근처의 산 등성이를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밤새 눈이 조금 내렸고 아무도 그 길 위로 걸어가지 않아서 동물들외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큰 발자국과 아주 작은 발자국들이 어떤 것은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옆으로 나란히 걸어간 것처럼 보였고, 어떤 발자국들은 들락날락 서로 엮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 전체를 보면 여러 다른 동물들의 발자국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작은 새앙쥐, 몸집이 큰 쥐, 코요테, 개, 고양이들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동물들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모든 성도의 날 [만성절 All Saints' Day]은 우리에게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발자국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발자국은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겠지만 당신 자신만을 위해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을 위해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성인" 들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의미를 신약 성경 방식으로 좀 더 넓은 뜻으로 해석해봅니다. 성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그들의 삶과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인들은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발자국을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발자국을 남긴 어떤 성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 옆에서 걷고 있고 또 다른 성인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팟 캐스트 중 하나 인 Krista Tippett의 Onbeing을 듣고 있었는데, 그녀가 시카고 Trinity UCC (기독교연합교회)의 Otis Moss III 목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Moss목사와 크리스타는 20 세기 흑인 설교자, 교육자, 신학자 및 인권운동 지도자 인 Howard Thurman 목사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Howard Thurman이 1981 년에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의 관심을 끌었던 그의 발자취는 Howard Thurman 흑인 목사와 백인 목사가 1944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개척한 Church for the Fellowship of All Peoples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고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민족 교회가 되었습니다.

Thurman은 제가 따라갈 발자국을 남겨 준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980년대 후반에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하이츠에서 의도적으로 개척한 다인종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주 Dayton에 있는 Unit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흑인 교회 연구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했었고, James S. Thomas 감독님의 장학금으로 건강한 다인종 교회가 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솔직히 다민족 교회 목회는 그 당시 D.Min 프로그램의 일부 동료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 하이츠 교회는 이십여년동안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해 일하면서 인종문제, 경제적인 것과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모습을 지역 사회의 다민족을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 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Howard Thurman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발자취를 남겨주었습니다!

Howard Thurman은 인종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자국을 남겼고 그는 또한 급진적 비폭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깊은 영성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남겨놓으신 발자국을 따라 갔습니다. Moss 목사는 Thurman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Thurman의 할머니는 아주 못된 백인 여성 옆집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인 여성은 흑인 이웃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 여성은 닭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닭장 청소를 마치고 Thurman 할머니의 정원에 닭 오물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정원의 꽃과 채소를 망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분노 더미를 보고 흙 속으로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노파는 아팠고 모든 사람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Thurman의 할머니는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골라 그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Thurman의 할머니를 보고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랑스러운 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구했네요, 자신이 망치려고 했던 정원에서 가져온 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Thurman의 할머니는 백인 여성이 실제로 꽃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할머니 마당으로 닭 똥을 버렸을 때, 그녀는 닭 똥을 꽃과 채소를 심을 때 그것을 토양에 뿌리고 그 결과는 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어린 Thurman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발자국” 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해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분노를 영혼의 토양으로 옮기십시오.

일리노이의 어느 호수 근처 산책로에서 한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성도의 날 (All Saints' Day) 에 우리는 Howard Thurman과 같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가 손자에게 전하여서 우리에게 내려 온 것 처럼 우리도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두 우리와 꼭 닮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서 전력을 다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전합니까?

모든 성도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분 이전에 걸어간 사람들이 남긴, 여러분을 가르치기위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걸으며 당신이 남기고자 하는 발자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자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Amen


Bishop Sally Dyck